

## 인터뷰 - 김강륜(프리랜서 음악감독)

# 음악을 알려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흰 눈 쌓인 구불청한 길을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초가집 한 채가 보인다.  
 몸은 추위와 싸우다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멍청해졌다.  
 누구 없느냐는 외침에 방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그네를 맞이한다.  
 추위에 떨고 있는 그에게 아랫목을 내어주며 몸을 달래라 하신다.  
 작은 상이 들어오고 상위에 커다란 그릇이 세 개다.  
 하나는 삶은 고구마가 그득하고,  
 다른 하나는 시벨겐 게 군침 도는 배추김치가,  
 나머지 하나는 투박한 질그릇에 얼음이 동동 뜬 식혜다.  
 그는 식혜사발을 들고 쭈욱 들이킨다. 달콤하면서도 시원하다.  
 입 안에 맴돌다 씹혀 터지는 밥알이 행복한 웃음을 준다.

소탕한 웃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녀에게서 일을 즐기며, 자연의 깨끗한 삶을 동경하는 순박한 모습이 보인다. 순박한 마음의 그녀가 음악감독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앞으로 도전할 미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쿨하게 들어본다.



### 경력

- 서울시립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작곡전공졸업 (03년)
- KBS서강악기아카데미 라디오제작과정 수료 (03년)
- 도서출판 <음악세계> 편집부 (03년)
- 게임사운드제작스튜디오 <Workspace> Game sound effect팀 (03년)
- 클래식미디어제작 <Mira Classic> 콘텐츠 기획 및 제작 (04년)
- 수원중앙성결교회 성가대 반주 (98년~현재)
- 한국교육방송공사 효과실 음악효과 전속 (04년~07년)
- 연극 <그리고 사랑>, <러빙유> 음악 감독 (09년)
- 음악효과 프리랜서 (07년~현재)

### 김강륜의 성장기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겨울 법도한데 남모르는 즐거움이 있었나 봐요. 그러던 중, 고1 때 교회 반주자님을 통해 작곡과 진학을 권유받고, 고1부터 작곡입시를 준비했어요.

대학 진학 후, Classic 작곡을 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진로에 대한 걱정과 전문대의 방송음악과의 현실적인 교육체제 등 클래식 음악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졸업 연주곡을 준비하면서 방송아카데미의 라디오 제작과정을 수강하기 시작했어요. 아카데미에서 졸업 작품을 준비하면서 동기들의 작품에 필요한 음악을 선곡해 주기도 하고, 제작 기획보다는 음악선곡에 시간을 더 할애하고 고민하면서 조금씩 방송영상음악에 접근했지요.

사회에 나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방송음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라 사무적인 일에 지루함을 느꼈어요. 퇴근 후, 방송음악 관련 직업을 알아보던 중 EBS에서 음악효과를 뽑는 공지를 보고 서류를 지원하면서 퇴직서도 함께 냈지요.

### 기억 속의 작품

프리랜서가 되면서 EBS의 '로봇파워'라는 작품을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첫 테이프를 받고 밤 10시부터 음악작업을 시작해서 4초 들어갔다 5초 들어갔다 하면서 100여곡을 넘게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시계는 새벽 3시를 달리고 있는데 작업은 반도 못 끝낸 거예요. 정말 그 순간 창밖을 보다가 도로에 뛰어 들어서 살짝 다치고, 이 프로그램 못한다고 말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프리랜서 3년차로 50분짜리 프로그램을 하기에 부족한 것이 많았던 거죠.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서도 한 작품은 끝내야지라는 생각으로 밤을 새고 눈에 핏대를 세우며 작업을 마쳤어요.

찾아 온 종편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종편실에 들어갔는데 제 페이더를 주시더라고요. 숨죽이고 앉아서 페이더를 올렸는데 그 순간 양쪽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가 제 발끝을 타고 머리끝까지 전율하는 거예요. 소름끼치는 느낌,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짜릿한 기분이랄까. 눈물 나도록 기쁘고 전날의 힘들었던 시간은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그 짜릿함이 힘이 되어 '로봇파워'를 1년이나 했답니다.



### 작업의 포인트

최대한 시청자를 방해하지 않는 투명한 그림자 같은 작업이랄까. 하지만, 액센트가 있고 역발상이 있는 작업. 만약에 작품이 슬프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슬픈 게 아니라 어느 포인트를 정점으로 슬픔을 극대화해서 강하게 몰아쳐 주는 거죠. 조수미가 성악이 아닌 '어머나'를 부를 때의 반응. 부조화 인듯하지만 조수미가 트로트를 부르기에 쇼킹한 것처럼 역발상에서 나오는 강렬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작업을 음식에 비유한다면 '식혜'. 두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달콤하게 넘어가는 시원함에 잘 식은 밥알을 씹으며 느껴지는 감칠맛, 그리고 남은 것을 훑어서 목으로 넘기는 맛이 재미있는 맛이더라고요. 강함을 주는 포인트는 있되,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발상적인 다양함이 있는 맛이 아닐까요.

### 일 속의 에피소드



지금도 하고 있는데 '효도우미 0700'이라는 프로그램을 작업할 때예요. 불은 라면을 드시는 할머니 모습으로 영상물이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제작은 시작되고 열심히 작업을 해야 되는데 눈물은 계속 흐르고, 몰래 눈물 짜며 일하던 모습이 기억이 남네요.

효도우미 0700은 생활이 어려운 70~80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성금을 모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영상물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폐지 줍고, 라면 하나도 아껴 먹으려고 반으로 쪼개서 물을 많이 부어 불려서 드시는 거예요. 소박한 꿈이 있다면 추위를 날 수 있게 연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막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밥이에요. 밥이 정말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것이구나 항상 감사하며 맛있게 먹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의 손길이 닿았으면 좋겠어요.

### 작업의 보람

참 많은데요. 우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시청자들의 음악 관련 문의나 너무나도 잘 봤다는 칭찬과 격려에 힘이 솟아요. 그리고, 남들이 못 찾던 음악을 찾아내 프로그램에 사용해서 잘 맞아 찬사를 받았는데, 그 음악을 다른 작품에서도 사용할 때 기쁘죠. 또, 제 작품이든 다른 여러 작품이든 모니터링하며 새로운 상상의 작업을 해보는 것도 즐거움을 줍니다. 가장 행복한건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음악이라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앞으로도 더욱 즐기면서 열심히 일을 하려 합니다.

### 일상의 모습

프리랜서라서 출근을 해서 작업을 하는 날은 7일 중 3일이에요. 나머지는 일에 대한 다양한 준비를 하지만 개인의 시간도 충분히 가져요. 일요일은 교회 성가대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요. 요즘은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매일 불교에서 하는 절을 올바른 자세로 100번씩 해요. 종교적인 시각을 벗어나서 바른 자세의 절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집중력이 좋아져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요.

산이나 바다로 국내 여행도 많이 다녀요. 여행은 정서적인 순환도 되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을 준다고 할까요. 여행은 풍부한 영감을 주기도 하지요. 그 외에 카페에 앉아 책 한권 다 읽으며 사람들 구경도 하고요, 요즘은 미술이나 조형물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관련 서적도 많이 즐겨보고 있어요. 남들과 다를 것 없는 일상의 모습이죠.



### 음악감독을 꿈꾸는 후배

두 가지가 있는 데요. 우선, 음악을 편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클래식 음악만을 중점적으로 들으면서 락 음악을 시끄럽다며 싫어했어요. 이것은 다양한 음악을 알아야 하는 음악감독에게는 독이에요. 특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장르뿐만 아니라 자기가 선호하는 악기 외에는 다른 악기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사용되는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해보고 풍부한 경험을 얻어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사회생활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지금은 프리랜서를 하고 있지만, 사회에 입문하자마자 프리를 하는 것은 좋은 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 년이라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패턴을 배우고 익혔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자유를 얻을 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 김강륜은 질그릇이다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자연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예술, 인간, 사회, 과학 등 여러 분야의 다큐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연극음악 작업에서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되어 방송뿐만 아닌 공연예술 분야에의 활동도 넓히려구요.

지인들에게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냐고' 물어 본 적이 있어요. 한 분이 '질그릇'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꿈꾸고 있는 것이 시골마을에서 동네 아이들과 어른들을 상대로 음악을 알려주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귀농에 대한 생각도 있고, 관련 서적도 정말 많이 읽고, 먹는 음식도 그렇고 해서 항상 자연을 꿈꾸는 모습이 순박한 시골을 연상시키나 봐요. 담아는 놓았지만 항상 신선하라고 호흡해 주는 질그릇처럼 약간은 투박하고 서투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알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겨울바다에 어울리는 음악으로 '두 번째 달의 서쪽 하늘에'를 추천했다. 드라마 '아일랜드'에서도 삽입된 곡으로 귀에 친숙하다.

이 음악은 누구나의 마음 속에 특별하게 남아 있는 겨울바다를 그녀의 말처럼 "너무 쓸쓸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살포시 덮고 그 위를 거니는 상쾌함"을 주는 행복한 여정이다.

